

미용전공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

왕지윤, 이지안*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뷰티테라피&메이크업 교수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in relationship between College-Life Satisfac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Beauty Major Chinese Students

Zhi-run Wang, Ji-An Lee*

Professor, Dept. of Beauty therapy & Make up, College of Beauty Arts, Seokye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 440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설문지를 배포 및 수집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통계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빈도, 기술통계, 상관분석,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학생활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셀프리더십이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대학생활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이 높아질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학습능률 저하와 대학생활 부적응을 해소하고, 유학생들의 성취감과 만족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유학생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및 COVID 19로 인한 에듀테크 시대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셀프리더십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하는 바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college-life satisfaction of Chines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Surveys were answered by 400 Chinese students from July to August 2019 and analyzed as follows. We used the SPSS22.0 program and Process macro for SPSS to analyze the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bootstrap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the college-life satisfaction, self-leadership,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Chinese students, and self-leadership acted as a partially mediating variable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college-life satisfaction. Therefore, it was found that a higher college-life satisfaction and self-leadership resulted in a higher academic self-efficacy. Based on these results, in order to alleviate the problems of college life maladjustment and low learning efficiency of Chines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the development of self-leadership education programs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is must be emphasized in the Edu-Tech era due to the need for customized education 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amidst the COVID-19 pandemic.

Keywords :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College-Life Satisfaction, Beauty Major, Chinese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Ji-An Lee(SeoKyong Univ.)

email: jessicajlee@naver.com

Received August 4, 2020

Accepted November 6, 2020

Revised August 31, 2020

Published November 30,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유학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해외에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한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차별화된 경험이 되고 있다[1]. 유학은 학문적 소양을 확장함은 물론 타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를 넓힐 기회가 되기도 한다. 2017년도에 전 세계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530만 명이 넘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에 가입한 지역에서는 370만 명을 초과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전국 대학의 재학생 중 외국인 유학생이 2.3%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OECD 평균 3.7%보다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여전히 호주, 영국,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을 유학지로 선호하고는 있지만, 최근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이는 2017년에 조사된 외국인 유학생의 비율이 2005년도 0.6%에 비해 3.8배가 늘어난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2]. 그러나 이러한 증가 추세는 2019년 COVID 19 영향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올해 급격한 감소 추세로 역전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3]. 2020년 현재 COVID 19로 인한 외국인 국제이동자(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입국자와 출국자)는 입국이 43만8000명으로 2018년보다 5만7000명 감소하였다. 이 중에서 유학·일반연수 입국자는 3천 명 감소하였으며, 출국은 42만6000명으로 6만 명 증가하였는데, 출국자의 경우는 2000년 통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였다[4].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는 호스트 국가의 경제 발전 및 글로벌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5] 많은 글로벌 인재들의 영입으로 국가 혁신 및 생산 시스템의 개발 증진을 도모하고, 고령화 사회의 인력 문제도 완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6]. 따라서 현재 국내 많은 대학은 교육서비스 품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은 국내 대입 정원에 미달한 대학들의 재정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돌파구를 제공하기도 한다[7]. 따라서 국경 없는 현대사회에서 대학교육의 품질은 하나의 무형의 서비스로 국제적인 무역상품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1]. 따라서 한국의 대학기관들은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등 아시아권의 여러 나라를 타겟으로 유학생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는 16만 명이 넘었고, 그중 중국 출신 유학생이 전체 비율의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베트남 유학생 23.4%, 몽골 유학생 4.6%, 일본 유학생이 2.7%를 차지하고 있다[8]. 한국교육개발원 2018년 4월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내 미용 관련 학부 및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총 207개가 있으며, 이 중 미용전공 외국인 유학생이 총 1331명이 재학 중이고, 중국 유학생이 941명으로 총 재학 유학생 인원의 71% 정도의 비율을 차지했다고 보고되었고[9], 올 초의 COVID 19 사태 전까지 더욱 증가 추세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이 같이 인구학적 차원이나 경제적 조건을 고려할 때, 중국은 역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최대의 시장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COVID 19 사태로 수많은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상황으로 국내 많은 대학은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9].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교육의 방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확실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11], 특히 한국 대학교육의 가장 큰 수요자인 중국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더욱 필요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중국과 한국은 산과 물이 한 데 이어진 이웃 나라로서, 중국은 일찍이 K-POP, K-Drama 등 한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미디어나 문화뿐 아니라 K-beauty라고 하는 한국 미용 분야의 매력 또한 중국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12]. 더불어 한국의 미용 교육은 20여 년 전부터 학사를 비롯한 석·박사과정까지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일찍이 교육 시스템이 체계화 및 표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이러한 한국의 미용 교육을 배우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있다. 한국으로 유학 온 다수의 미용전공 중국 유학생들은 장차 한국과 중국의 미용산업분야에 있어 효과적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양 국가의 핵심적인 미용 인재가 될 것이다[13].

따라서 현재 국내 대학의 미용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위해 대학 생활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14]. 특히 올해부터 국내 모든 교육기관이 COVID 19로 인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였고, 이후로도 IT 기술을 접목한 교육 혁신을 의미하는 에듀테크(EDUTECH) 시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은 자발적이지 않은 수동적인 학생의 경우 학습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다[15]. 따라서 대면 수업이 아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는 에듀테크 시대에는 무엇보다 학습자 스스로의 능동적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가 학습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강화할 수 있는 학습자의 셀프리더십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다[16].

셀프리더십은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동기 부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을 의미하며[17], 대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성장 및 사회생활 적응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16]. Manz[18]는 1980년대 조직 환경 및 구성원의 가치관이 급속하게 변화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인식 하에 최초로 셀프리더십을 제안하였다. 셀프리더십은 초기에 크게 행동적인 전략과 인지적인 전략으로 나뉘어 연구되었다[19]. 이 이론은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따라 행위지향적인 전략, 자연적인 보상 전략, 건설적인 사고 전략 등 3가지 요인으로 분리되었다[20]. Houghton과 Dawley, DiLiello[21]는 셀프리더십의 구성요인을 행위 지각 및 의지(behavior awareness and volition), 과제 동기(task motivation), 건설적인 인지(constructive cognition)의 3가지 요인으로 정리하여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인 ASLQ(Abbreviat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셀프리더십이 향상되면 자율성과 열정[22], 책임감[23], 자기주도학습[24]과 전공 능력 향상[25] 등 성공적인 대학 생활이 가능해진다. Lee[26]는 간호대학 학생들의 셀프리더십과 대학생활만족도 사이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대학생활만족도란 대학생이 소속 대학에 느끼는 친근감 정도와 전반적인 호감도로서,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만족도, 학업적인 목표에 대한 몰입도를 평가하는 개념이다[27]. Ryu, Kim[28]은 대학생활만족도는 각종의 외적 환경과 내적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얻은 것으로 검증하였다. Kim[29]의 연구에서는 대학생활만족도는 학생들이 소속 대학 생활환경에서 학업적인, 생활적인, 행정적인, 개인적인 활동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느끼는 주관적·인지적인 평가의 총족 정도를 말한다고 하였다. 또한, 재학기간과 학생들의 특징에 따라 학교생활 만족도를 연구한 Kim[20]은 학년과 성적이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Kim, Kim[31]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아지면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32],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유학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고, 학업성취도도 높아진다[33]. 대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학업에 관심과 흥미를 느끼고 학습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으면 자신의 학습력과 과제 수행력을 확신하는 신념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34][35]. Wang[36]은 미용전공 중국 유학생의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같이 제고된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Lee, Jung[16]와 Choi, Jo[37] 등은 대학생활만족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며, 셀프리더십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35][31]하였고, Lee, Jung[16], Kim, Park[38], Lee[39], Kim[25] 등 다수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근거로 대학생활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이 매개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일반 대학생이나 국적을 특정하지 않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에게 초점을 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생활에 대한 흥미와 성취감을 증진하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만족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에듀테크 시대에 효과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만족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셀프리더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넷째,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양적인 조사연구이다. 연구모형은 아래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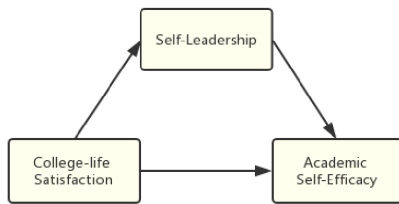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진행하기 앞서,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 50명을 예비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예비조사는 중국어로 번역된 설문 문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설문문제를 수정·보완하여 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조사의 대상은 서울지역의 4년제 대학에서 미용을 전공하는 재학 중국인 유학생 총 452명이었으며, 조사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다. 응답 중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된 12부를 제외하고 44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Lee[35]의 연구에서 사용한 17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이 도구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동의한다고 간주하였다. Lee[35]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Cronbach's $\alpha = 0.81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0.872$ 였다.

2.3.2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Dawley, DiLiello[21]가 개발하고 Park[40]이 번역한 ASLQ를 사용하였다. 셀프리더십은 행동지각 및 의지, 과제동기, 건설적 인지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상위요인만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Park[4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78$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0.794$ 로 나타났다.

2.3.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Kim, Park[41]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Kim, Park[41]의 척도는 총 28문항의 Likert 6점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는 문항을 추출하여 12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축소하였다. Kim, Park[4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79 \sim 0.87$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0.673$ 으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만족도를 매개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418명(95.0%), 연령은 만 20세 ~ 25세 미만이 380명(86.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학년은 1학년이 109명(24.8%), 2학년이 132명(30.0%), 3학년이 119명(27.0%), 4학년이 80명(18.2%)으로 나타났다. 한국체류기간은 3년 이하가

266명(60.5%), 3년 이상이 174명(39.5%)으로 나타났고, TOPIK은 3급 및 3급 이하가 219명(49.8%), 3급 이상이 221명(50.2%)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은 피부전공이 288명(65.5%), 메이크업전공이 152명(34.5%)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중과 상이 213명(48.4%), 141명(32.0%)으로 많이 나타났고, 방과 후 학습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자가 213명(48.4%), 미경험자가 227명(51.6%)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ategories		(n=440)	
		N	%
Gender	Male	22	5.0
	Female	418	95.0
Age(years)	Less than 20	40	9.1
	20~21	195	44.3
	22~24	185	42.0
	Older than 25	20	4.5
Grade	1 st grade	109	24.8
	2 nd grade	132	30.0
	3 rd grade	119	27.0
	4 th grade	80	18.2
Period of stay in Korea	< 3 years	266	60.5
	≥ 3 years	174	39.5
TOPIK	≤ Level 3	219	49.8
	>Level 3	221	50.2
Major	Skin	288	65.5
	Makeup	152	34.5
Economic level	High	141	32.0
	Middle	213	48.4
	Low	86	19.5
Experience of after school activities	Experienced	213	48.4
	Not experienced	227	51.6
Total		440	100.0

3.2 기술통계

연구변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 대학생활만족도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75, 셀프리더십의 평균은 5점 만점에 4.08,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5점 만점에 3.24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Skewness) 와 첨도(Kurtosis)를 산출한 결과, 모든 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Level of Variables (n=440)

Variables	Mean	SD	Skewness	Kurtosis
College-life satisfaction	3.75	0.57	-0.17	-0.21
Self-leadership	4.08	0.51	0.02	-0.26
Academic self-efficacy	3.24	0.51	0.06	-0.28

3.3 상관관계 분석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활만족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r=.326, p<.01$), 셀프리더십($r=.392,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r=.399,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또한 측정변수들 간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8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of Variables (n=440)

Variables	1	2	3
1. College-life satisfaction	1		
2. Academic self-efficacy	.326**	1	
3. Self-leadership	.392**	.399**	1

** $p<.01$

3.4 대학생활만족도가 셀프리더십을 매개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영향 관계는 Table 4와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대학생활만족도가 매개변수인 셀프리더십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beta=.392, p<.001$), 2단계에서 대학생활만족도가 종속변수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beta=.326, p<.001$),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대학생활만족도와 매개변수인 셀프리더십 모두 종속변수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학생활만족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랩 검증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대학생활만족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양(+)의 값을 보였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B=.179, p<.001$),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을 통한 간접효과도 양(+)의 값을 보였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았다($B=.112, p<.001$). 소벨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ad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life satisfac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n=440)

Step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F (R ²)
1	College-life satisfaction	Self-leadership	.350	.039	.392	8.905***	<.001	79.293*** (.153)
2	College-life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291	.040	.326	7.224***	<.001	52.191*** (.107)
3	College-life satisfaction	Academic self-efficacy	.179	.042	.201	4.303***	<.001	52.359*** (.193)
	Self-leadership		.320	.047	.320	6.859***	<.001	

*** p<.001

테스트 결과도 유의하게 나타나($Z=5.424, p<.001$), 대학 생활만족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도 정(+)의 영향을 미치고, 셀프리더십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활 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서 셀프리더십은 부분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Table 5. Bootstrap and sobel test of the effect of College-life satisfaction on Academic self-efficacy (n=440)

	Effect	B	SE	LLCI	ULCI	t
College-life satisfaction	Total	.291	.040	0.212	0.370	7.224***
	Direct	.179	.042	0.097	0.261	4.303***
	Indirect	.112	.022	0.071	0.158	5.424***

*** p<.001

4. 논의 및 결론

세계화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기 위하여 국경을 초월한 유학의 규모가 커지는 현대사회에서 유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는 학업과 자기조절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16][26][36]. 이에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는 미용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 셀프리더십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은 대학생활만족도가 평균 3.75점, 셀프리더십이 평균 4.08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평균 3.24점으로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연구도구를 사용한 Kim, Kim[31]의 연구에서 한국 전문대학 미용전공 학생들이 대학생활만족도 3.20점, 셀프리더십 3.24점으로 나타난 것보다 더 높

은 정도를 보였고, 서울, 경기 소재 일반 4년제 대학의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Lee[35]의 연구에서 나타난 대학생활만족도 3.15점, 셀프리더십 3.88점보다 더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Kim과 Park의 연구[38]에서 나타난 한국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평균 3.09점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비교했을 때 국내 대학생에 비해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학생활에 대해 더 만족스럽고, 셀프리더십이 더 강하며, 학업적 자기효능감 또한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중국보다 더 첨단인 미용기술을 배우고자 자신이 원하여 한국 유학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대학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으며, 자기주도학습 역량과 관련된 셀프리더십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들이 한국으로 유학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25], Lee[26], Lee[35], Wang[36], Choi, Jo[37], Kim, Park[38] 등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한국 학생뿐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들도 대학생활만족도와 셀프리더십이 향상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향상되어 성공적으로 유학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Lee, Jung[16], Kim, Kim[31]의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이 대학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39]의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활만족도,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의 부분매개 역할이 검증되었다. 즉 대학생활만족도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

지만, 셀프리더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Leel39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감성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영향 요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셀프리더십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활만족도 제고를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학생들에게는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우수한 학업 성적과 학습효과를 얻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무사히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배치하여 상담이나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42], 중국어가 가능한 교수를 초빙하여 전공과목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동시에 유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맞춤형 수업 과정 및 형식 제공, 강의 내용과 전공에 관련한 수업자료 등을 중국어로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한다면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만족도가 높아져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셀프리더십을 통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에 홀로 유학한 상태에서 COVID 19라는 상황에 조우하여 급격한 학습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학생들이 스스로 능동적,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의 강화가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다양한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하지만 학교 외부에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유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 등의 부서에서 각 대학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접근성이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 셀프리더십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향상으로 연결되어 중국인 유학생들의 유학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는 대학생활만족도보다 셀프리더십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셀프리더십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므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셀프리더십 향상이 유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대학시설 등 환경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개인적인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등에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COVID 19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이 시행되는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역할은 가르치는 것에서 학생 스스로의 자발적 학습을 돕는 협력자의 역할[15]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지역의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지역적 한계와 중국인 유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적인 조사 지역의 확대와 다양한 국적의 미용전공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확대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셀프리더십에는 리더십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등 여러 가지 요인들[26]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미용전공 중국인 유학생의 학습성과와 자립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Yuyama, Mariko, *A Comparative Study about Foreign Students' Satisfaction on University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eoul, Korea, pp.1-2, 2008.
- [2]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pp.228, 2019 DOI: <https://doi.org/10.1787/f8d7880d-en>
- [3] Y. J. Kim, Yonhap News, Pyeong Chang Effect Ends, Corona 19 Spread was the biggest foreign departure ever last year [Internet]. Yonhap News, [cited 2020 July 16]. Available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6086600002?input=1195m> (accessed July 25, 2020)
- [4] Statistics Korea, *International Migration Statistics in 2019*, Statistics Korea.
- [5] H. H. Ha,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Educational Satisfaction of Foreign Students Studying Abroa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of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pp.1, 2012.
- [6] OECD (2016),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16*, OECD Publishing, Paris. DOI : http://dx.doi.org/10.1787/sti_in_outlook-2016-en
- [7] H. S. Park, "College life satisfac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students attending a korean university", *Ewha J of Educational Research*, Vol.41, No.3,

- pp.1-27, 2010.
- [8] H. Y. Xv,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Self-Esteem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Majoring in Beaut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kyeong University, Seoul, Korea, pp.7, 2019.
- [9] Ministry of Education, Statistics of Foreign Students in Kore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2019, Ministry of Education, Korea.
- [10] C. Y. Kim, Sedaily, Decreased school age population, college abandonment crisis ... should be learning consumer-oriented innovation [Internet]. Sedaily, [cited 2020 July 8], Available From: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81IDCZI/GKO107> (accessed July 25, 2020)
- [11] Y. G. Lee, B. J. Jang, Y. K. Park, "Environments on Overall Service Quality, Service Value, and Student Satisfaction in Undergraduate Higher Education", *ASIA MARKETING JOURNAL*, Vol.4, No.1, pp.77-100, 2002.
- [12] K. J. Yeon, H. S. Bae. "A Study of Acknowledgement and Satisfaction of the Korean Beauty Market of Foreign Visitors to Korea - Comparison of China, Japan and Western countrie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22, No.5, pp.922-930, 2016.
- [13] H. Y. Xv, J. A. Lee,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the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Majoring in Beau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24, No.6, pp.1256-1267, 2018.
- [14] J. M. Yoon, The Asia Business Daily, Honam University Department of Beauty and Beauty-China Jiangsu Provincial Vocational College Meeting [Internet]. The Asia Business Daily, [cited 2019 Nov. 14], Available From: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11411595914564>
- [15] J. H. Oh, From COVID 19 to the future, from the era of education to the era of learning, Issue&Analysis, Gyeonggi Research Institute, Korea, pp.4-9.
- [16] Y. J. Lee, K. S. Jung,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 Self-leadership and Campus-life Satisfaction Level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5, No.1, pp.391-410, 2018.
DOI: <http://doi.org/10.21509/KJYS.2018.01.25.1.391>
- [17] G. E. Prussia, J. S. Anderson, & C. C. Manz, "Self-Leadership and performance outcomes: The mediating influence of self-efficacy",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Vol.19, No.5, pp.523-538. 1998.
- [18] C. C. Manz,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1, pp.585-600. 1986.
- [19] C. C. Manz, H. P. Sims, "Leading workers to lead themselves: The external leadership of self-managing work team",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32, No.1, pp.106-128, 1987.
- [20] J. D. Houghton, C. P. Neck,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of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17, No.8, pp.672-691, 2002.
DOI: <http://dx.doi.org/10.1108/0268394021045048>
- [21] J. D. Houghton, D. Dawley, T. C. DiLiello, "The abbreviat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ASLQ): A more concise measure of self-leade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Leadership Studies*, Vol.7, No.2, pp.216-232, 2012.
- [22] C. C. Manz,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98.
- [23] M. A. Park, "Self-leadership, Stress o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coping styles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 University, pp.5, 2014.
- [24] C. S. Wong, K. S.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 13, No. 3, pp. 243-274, 2002.
DOI: [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25] J. I. Kim,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5, pp.253-262, 2018.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8.19.5.253>
- [26] G. Y. Lee, "Levels of self 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 in Metropolitan",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2, no.6, pp.233-253, 2016.
DOI: <http://dx.doi.org/10.24159/joec.2016.22.6.233>
- [27] S. H. Cho, *The Relationship among Social Support, Academic Adjustment, and Campus Life Satisfaction with the Extracurricular Club Activities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22, 2007
- [28] H. S. Ryu, N. Y. Kim, "A Study about Characteristics of Freshme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in Three Years College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College Lif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2, no.1, pp. 359-384, 2008.
- [29] J. G. Kim, H. G. Seong, C. W. Lee, K. J. Park, "Student Life Satisfaction : Components and Predictors",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4 No.1, pp.154-167, 1991
- [30] N. Y. Kim,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stres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2011

[31] M. H. Kim, Y. J. Kim, "A Study on the Influences of the Self-leadership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Beauty Arts on Their Learning Effects and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vol.22, no.4, pp.25-36, 2016.

[32] A. Bandura,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New Jersey: Prince, Hall, 1986

[33] J. H. Ha, *The Effects of ICT based Learning Environment on the English Learning Attitude, Learning Achievement Level and Academic Self-efficacy English class in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03.

[34] J. H. Lee, *The Effec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Program utilizing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Satisfaction:Focusing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Psychotherapy Hansei University, Korea, pp.32, 2014

[35] Y. J. Lee,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 Self-leadership Level on Campus-life Satisfac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2012

[36] Z. R. Wang,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Academic Self-Efficacy of Chinese Students in Beauty Major",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0, no.1, pp.251-259, 2020. DOI: <http://dx.doi.org/10.22156/CS4SMB.2020.10.01.251>

[37] M. S. Choi, H. Y. Jo,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Directed Learning,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of S University Students: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Self-Directed Learning Programs of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6, pp.701-720, 2019.

[38] S. H. Kim, S. Y. Park, "Factors Influencing on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3, pp.1557-1565, Mar.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557>

[39] O.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9, pp.6036-6043, Sep.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9.6036>

[40] J. Y. Park, *Prediction of Students' Self-leadership on Learning Satisfac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Learning Flow*.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17.

[41] A. Y. Kim, I. Y. Park,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39, no.1, pp.95-123, 2001.

[42] J. W. Kim, E. J. Kim, "A Study of Chinese Student Adaptation to Korean Universities and Level of Satisfaction with University Life" *Journal of the Korea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vol.24, no.4, pp.99-112, 2019. DOI: <http://dx.doi.org/10.9723/jksiiis.2019.24.4.099>

왕 지 윤(Zhi-run Wang)

[정회원]



- 2014년 2월 :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석사
- 2018년 2월 ~ 현재 :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박사
- 2014년 7월 ~ 2016년 6월 : 중국 Ningbo위생직업기술대학 의학미용기술전공 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서경대학교 뷰티테라피&메이크업학과 교수

<관심분야>

Beauty Therapy, Cosmetic, K-beauty, Beauty Education

이 지 안(Ji-An Lee)

[정회원]



- 2007년 2월 : 서경대학교 대학원 (미용예술학석사)
- 2012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미용학박사)
- 2011년 3월 ~ 2013년 8월 : 삼육보건대 학토탈미용과 겸임교수
- 2013년 9월 ~ 현재 :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뷰티테라피 & 메이크업학과 교수

<관심분야>

Beauty Therapy, Cosmetic, K-beauty, Beauty Education